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주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이사야 53:12)

일시: 2월 26일(금) 저녁 7시

장사: 김성관 위임목사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외)
자비와 진노하심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성
(로마서 9:14~29)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롬 9:1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전혀 없다. 이 택하심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약속의 본질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이시다(롬 9:14~15). 그리고 공휼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마음대로 하신다(롬 9:16). 만일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며 그 반대로 강박하게도 하신다(롬 9:17~18).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는 스스로 그 길을 택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죄에 그대로 내어버리신다(롬 1:24, 26, 28). 이토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달려 있다면 도대체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롬 9:19~20). 바울은 이 질문에 근본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롬 9:21).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선에 놓으려는 행위 즉, 창조주를 대항하는 모습이다. 토기장이를 향하여 흙덩이가 무엇을 할 수 있던 말인가!

이 세상이 계속되는 동안은 진노의 그릇 역시 공휼의 그릇과 함께 나란히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허락하시는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시는 데에는 그의 목적이 있다. 옛날의 바로와 같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진노의 그릇이다(롬 9:17, 22, 23). 이스라엘의 광복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온 세상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휼의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거절과 세상의 구원을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롬 11:12, 15, 19, 30).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보면서 '진노의 그릇'으로 이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선을 넘어서 다른 부류를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공휼의 그릇들을 만들고 계신다. 유대인 중에서 믿음에 이른 자들과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믿음에 이른 수 없이 많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공휼의 그릇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대인 중에서도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있었다(롬 9:24).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수가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선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고집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호 1:10, 2:23; 롬 9:25~26; 사 10:22).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모래 알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였다. 구원받은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제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정하셨으므로 구원은 누구의 행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만 주는 선물이다(롬 9:12). 또한 부르심도 하나님 마음대로 베푸시는 자비하심 때문이다(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 남은 자가 있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롬 9:29)).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완전하게 지켰다. 그리스도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이른다. 아멘.

2009년에 우리는 세 번의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 담겨 있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십자가 보혈의 생물은 계속 넘칠니다. 아니, 더욱 절절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훈련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부지런히 알리십시오. 청지기훈련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말씀의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이번 주 수요일(17일)부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평일 40일과 여섯 번의 주일을 합해서 46일간을 지킵니다. 올해는 이번 주 수요일(2월 17일)부터 시작되니 모든 성도는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하여 주력교구별로 진행될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새벽 4:50)에 해당 교구식구들은 모두 참석하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주력교구별은 본지 7면

*2010년 전반기 충현장학생 명단 본지 5면

TEMPTATION

*⁽¹⁾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aroun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²⁾for forty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And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had ended, He became hungry.
(Luke 4:1~2)*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Lenten season. It is a special time of prayer and preparation to celebrate God's wonderful redemption at Easter, and the resurrected life that we live, and hope for, as Christians. Since Sundays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six Sundays that occur during Lent are not counted as part of the 40 days of Lent, and are referred to as the Sundays in Lent. The number 40 is connected with many biblical events, but especially with the forty days Jesus spent in the wilderness preparing for His ministry by facing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He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was led into the desert wilderness. Our Savior had just been anointed by the Spirit of God at His baptism,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out of heaven, 'You are My beloved Son, in You I am well-pleased'" (Lk. 3:22). God was preparing Jesus for His ministry work, for three years of mounting conflict that would end in torment and execution on a cross. The devil wanted to prevent Christ from even beginning His mission of redemption. He attacked Jesus' human nature. The divine nature of Jesus did not cancel out His human nature. Jesus was vulnerable to the temptations of Satan, just like we are. God permitted these temptations to prepare and help Him for the future. Jesus' victory is our victory. His forty days of combat with the enemy, defending Himself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gainst awful temptations, helps us to stay on the narrow path as we follow Christ.

Jesus followed God's plan. God led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into a very dangerous area, and Jesus went. If there was anyone you might think didn't need to be tested by God it was His Son. Jesus loved God with all His heart; He always obeyed God. God had just told Him how much He loved Him and was pleased with Him, and He filled Him with His Spirit, and yet immediately from that blessing He is led into a wilderness, and He is exposed to a long and serious encounter with the devil. What possible good could come from that for Jesus? This trial gave Jesus assurance that far greater was His Father in whom He trusted than the devil. God allowed His Son to experience what He did to strengthen Him in faith. That was the victory that overcame the devil. Jesus knew the power of God's grace when He had felt the power of Satan's testing and appreciated the glory of preserving grace. His upcoming ministry work would determine the eternal fate of this world. There is always an easier route when it comes to temptation. The devil uses your weakness for personal glory and power to tempt you to take the easy way. Everyone is like that, but Jesus had to overcome once and for all. He needed perfect victory. He had to conquer all the devil's temptations to endure the cross. He followed God's way, and you too must always follow God's way.

Jesus relied on God. For forty days He was tempted, and tempted in every point as we are. God used Satan's temptations to strengthen Jesus. Jesus confronted the devil full of the Holy Spirit and won. He turned back the enemy. His victory brought Him blessed assurance and power. His victory over Satan prepared Him for full service to

God. He went forty days without human contact or food. He communicated only with God. That was His strength. Jesus relied on God, not His own will. He strictly lived by faith. For forty day in the desert wilderness He prayed. Prayer is essential, "Stop depriving one another, except by agreement for a time, so that you may devote yourselves to prayer, and come together again so that Satan will not tempt you because of your lack of self-control" (1 Cor. 7:5). When you concentrate on God you can never lose. Jesus understood the power of prayer, "In the days of His flesh, He offered up both prayers and supplications with loud crying and tears to the One able to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piety.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from the things which He suffered" (Heb. 5:7-8). Jesus' victory in the wilderness prepared Him for the tougher times yet to come. He helps us today because He endured and successfully passed His tests. He offers us mercy a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for He knows what we are going through,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Therefore let u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Heb. 4:15-16). If you rely on God, you too will have victory,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allow you to be tempted beyond what you are able,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provide the way of escape also, so that you will be able to endure it" (1 Cor. 10:13).

My dear friends, if you obey God by following Christ you will always have victory. We are all going to meet times of temptation when the voice encouraging us to sin is more plausible than ever before, when the sin is more attractive and irresistible than we have ever known, when the door of evil is open wide and every encouragement is being given to us to enter. How blessed you will be if you are prepared for such a time. Jesus met temptation and overcame it, and by Him we can overcome it too. The devil who tempted Christ is at work deceiving us today. This happens all the time, and we are to watch out for it, and understand this phenomenon, and pray. There is a being in the universe named Satan whose existence is set on wrecking eternally the children of God. The devil is out to get you, one way or another, but Jesus Christ the great conqueror, is out to deliver you! Please look unto Jesus and He will carry you through the time of temptation. There is no one else to whom to cry. Hebrews 12:1-2 say, "Therefore, since we have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surrounding us, let us also lay aside every encumbrance and the sin which so easily entangles us,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You can win over temptation if you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Amen. 

다들 주일 설교

다들 주일 설교

시 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며 주리신지라

(누가복음 4:1~2)



김성관 목사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삶, 그것에 대한 소망을 축하하는 부활절을 기도로 준비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사순절의 40일에 포함되지 않고 사순절 기간의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많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마귀의 시험을 당하며 광야에서 지낸 40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광야에 이끌려 들어갔을 때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버들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 3:22).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작될 3년간의 사역은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시작부터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녔다고 해서 주님의 인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탄의 시험 앞에 연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위해 이 시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시험들을 이기고 자신을 지키신 주님의 40일간의 사탄과의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을 위험천만한 곳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시험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당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끝나자마자 곧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셨고 그곳에서 마귀와의 길고도 긴장된 대면의 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신뢰하는 아버지가 마귀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믿음으로 자신을 감인하게 단련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들을 때 예수님께 변함없는 은총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감당할 사역은 이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언제나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마귀는 개인의 영광과 권력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사역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더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합니다. 모든 사탄의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단번에 완전히 이겨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완벽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를 건지기 위해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험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으로 마귀를 대적했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을 저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서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과 권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의 접촉이나 먹을 것 없이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성야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7:5).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게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 반드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7-8).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는 앞으로 자신에게 다칠 험악은 시간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시험들을 건드리셨고 성공적으로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전 10:1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험의 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그럴싸하고, 지극히 잘 알고 있던 것보다 한층 더 매혹적이어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고 좌악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유혹이 밀려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위해 미리 준비된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단련이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속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시하여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주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위대한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시험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올때 매달릴 수 있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1-2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②

유대인들의 심문과 베드로의 부인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하게 기록하였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심문을 받는 장소에 대해 대제사장의 집 돌입을 밝혔다(요 18:15). 누가도 동일하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였다(눅 22:54). 또한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사도 요한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이바의 장인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기록하였다(요 18:13). 누가도 각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이바라는 사실을 기록하였다(눅 3:2; 행 4:6). 참고로 안나스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언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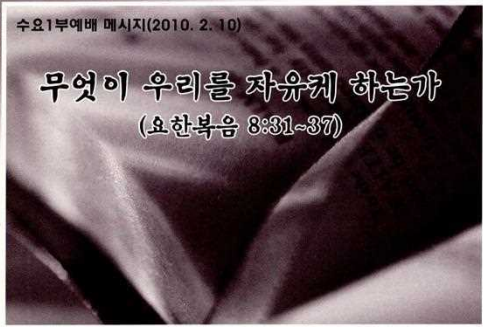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인기를 빼앗는 것처럼 보인 예수님을 질투하였고 항상 도전하였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록을 통해서 깨어진 애들동산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가서서 욕심으로 가득찬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며 유대인들을 꾸짖으셨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요 2:19).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다(요 20:20~21). 이와 동일한 기사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임을 밝혔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 사역의 말미에 기록하였다. 이것은 누가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눅 21:5~6).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커녕 믿을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니의 아들로 믿지 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가차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요 11:48).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사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하였다(행 13:14). 매번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다(요 10:24~25; 눅 22:67,70).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가뭇, 불가뭇,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매번 하나니께 불평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유대인들은 항상 전통과 율법을 내세우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흐트렸으며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죽이려고 하였다(요 10:33~36).

예수님이 심문을 받으시던 곳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음을 사도 요한과 누가는 동일하게 기록하였다(요 18:18; 눅 22:55). 베드로는 군인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막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신대로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었다(요 18:25~27; 눅 22:56~60).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와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부인했다는 것만 밝혔다. 예수님을 심문하며 끊임없이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던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신한 베드로는 곧 세상을 기운아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의 초점에서 십자가가 흐리질 때 우리는 반드시 범죄한다. ‘오실 메시아’를 예타케 기다렸음에도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다. 유대인들과 베드로처럼,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오 갈보리! 주 예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하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1부예배 메시지(2010. 2. 10)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요한복음 8:31~37)

많은 사람이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불평등과 무거운 멍에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 무엇이 진실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해주고 있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회에서 결정하였다(요 7:45). 그러나 공회에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다(요 7:46). 이와 같은 상황으로 종교지도자들은 더욱 분노하였고 매마침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다(요 8:3).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부리를 잡을 속셈이었던 것이다(요 8:4~6).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도전(요 8:7~11)하셨고 자리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임을 밝혀주셨다(요 8:12).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갈 곳에 대해서 설명(요 8:21)하신 뒤에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 **말 씀**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진리는 부와 명예, 성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다(요 17:17). 그 말씀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요 8:31)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는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엡 5:26). 오직 참 진리만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니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4~25).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구원과 영생이다. 예수님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 있다. 그런데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안에서 진리를 찾아 헤맨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될까? 어떤 관심을 갖는다. 이 악한 모습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자.

● **구 주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6). 우리는 죄의 멍에로 인해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었다. 멸망에서 영생,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뀐 것이다(요 3:16~18).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 관심이 없거나 예수님을 모른다. 삶의 심각함은 느껴면서 정작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더 이상 악한 영들의 시험에 흔들려 종의 멍에를 메지 말자(갈 5:1). 오직 주 안에 거하자(빌 4:1).

● **성령**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후 3:17). 율법과 전통은 우리를 묶었지만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요 8:36). 그 자유를 우리는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시라(골 1:15:26). 그리고 참 자유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다(갈 5:22~23).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세상에서 자유를 찾지 말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다. 구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क्ष량함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그 자유의 삶을 지속하시라는 것이 성령님이 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들은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아멘.

심장과 가슴 사이가 찢어지는 회개

2007년 8월 10일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6월 충현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금요찬양집회였습니다. 본당 밑의 지하에서 화면을 통한 예배였지만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서 영적인 권위와 권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자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말았다. 인간은 두려움에 붙어 있다. 인간의 두려움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 후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그 때부터 나의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충현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회개(마 4:17)와 자기부인(마 16:24)의 메시지는 충분히 저를 압도하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 모든 것도 참음을 위한 통기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심장과 가슴 사이가 찢어지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죄의 죄사슬에 매여 있는 육체를 실제적으로 찢는 변화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회개와 함께 내 목에 힘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나의 몸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였습니다. 십자가만 전하는 충현교회에 말씀의 은혜로 내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추어졌고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나의 소망과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권 강(외선부 중곡팀)

"현재 권 강 형제는 외선부 중곡팀 통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간 대리전전을 하며 생황하고 있다. 그는 지난 성탄절에 자신의 전 신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역을 구주 탄생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렸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 감격한 평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족히 내리어 주옵소서!" 3개월 간의 선교훈련을 마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지를 향해 출발했다. 첫날부터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먼저 피해버리는 사람들을 보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이 마을에도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전도했다. 그런 중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났다. 그가 그 마을에 작은 씨앗이 되어 주님의 복음이 그 마을에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했다.

각 마을마다 꼭 한두 사람씩은 복음을 영접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실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를 만나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또 우리는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주님을 믿는 한 형제이기에 서로 울며 기도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빨리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한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시시각각 느끼게 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정호(임사, 24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1일(목) ~ 2월 19일(금)	대학부 1팀	임광진
2월 11일(목) ~ 2월 19일(금)	대학부 2팀	김희동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5일(월) ~ 2월 20일(토)	중등부 1팀	박원화
2월 15일(월) ~ 2월 20일(토)	중등부 2팀	윤병식
2월 17일(수) ~ 2월 24일(수)	중등부 3팀	김영은

2010년 전반기 충현장학생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힘쓰라"(딤후 2:15)

대학원생 (14명)

강지영	고혁준	구자은	김동현	김용성	양윤영	유미경	윤은희
이경진	이우주	이재원	최예슬	최지혜	한정석		

대학생 (119명)

강민희	강재현	고영규	권마리슬	김 결	김다령	김동석	김민정
김성혜	김성훈	김소담	김소라	김연희	김예지	김예진	김유림
김유용	김윤경	김윤영	김정훈	김지영	김지윤	김진희	김태환
김하은	김해옥	김현철	김형규	김효남	김지현	남지희	
문상효	문영광	박다솜	박서정	박성수	박수정	박연정	박요섭
박정윤	박종현	박철호	백민지	백지수	변해연	성종규	성지영
신하영	심재원	양성윤	양찬미	엄예은	염새봄	예지희	오라파
왕현정	유정현	유종훈	윤수정	윤용성	이다영	이다정	이동훈
이새롬	이세익	이소희	이송이	이수정	이신애	이은경	이은미
이은혜	이정희	이주원	이지훈	이초한	이혜린	이효용	이훈희
임성화	임지혜	임진아	장성길	장성훈	장준호	전다인	전숙현
전하라	전현준	장구환	장나혜	장다예	정성국	정성미	정수민
정예화	정준성	정지혜	조상미	조수빈	조솔기	조용건	지은미

최예진	최재성	추수환	하지명	한경태	한정훈	한태희	현슬기
형윤옥	홍덕용	홍서인	홍은표	황예리	황지현	황하진	

고등학생 (83명)

강성민	강성종	강철술	강하은	고민우	고수현	공예령	공진규
곽정원	권재성	김경희	김대정	김명화	김민정	김신영	김은진
김정연	김정원	김종옥	김지원	김지일	김진욱	김하빈	김하은
김한나	김한B	남정숙	남명훈	남소리	돈명재	문주영	민사라
민준서	박동규	박지홍	박지훈	박재민	박푸름	배성민	백수희
변지연	양정교	이성민	이성민	박나현	원승연	원종진	유지현
윤영훈	이정아	이성민	이소연	이예주	이예현	이요한	이원진
이은혜	이계영	이주안	이현하	임소정	임인선	임진록	임종규
전윤섭	전태준	전하예	정종우	정예림	정의림	정현종	조유준
조진희	조하은	지현덕	최미영	최예은	최용현	최용호	최재필
최현호	한준식	홍지혜					

총 216명

충현장학생 선발자 명성원(대학원생 · 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 2월 19일(금) 15:00~18:00 장소 : 제1교육관 407호

대학부 수련회

십자가, 회개 그리고 회복

수련회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새 친구, 휴가를 받아 수련회에 참여한 군 지체, 소망함을 가지고 나온 친구, 무덤덤함으로 나온 친구 등 여러 모양을 가진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수련회에 한번 기대를 품고 자신의 삶 속의 시간을 쪼개 기도원으로 향했다.

수련회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지름 만나, 당장만 나!', '스크즈(설경퀴즈)', 'Action' 갈 2:20' 등의 제목으로도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대학부 내에서의 여색함을 화해함으로 바꿀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말씀을 그리고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은 놀라움과 기쁨 그 자체였다. 예수님을 그저 머리모만 알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멋진 그곳이 아닌 보잘것없는 칠그릇인 것도 알게 하였다. 보잘것없고 그 자체로 빛을 낼 수도 없는 칠그릇이기에 더욱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주를 믿고 지내는 날이 더 많은 우리를 친히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우리에게 수련회라는 시간을 준비하시어 주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을 더 나아가 주님께 감사할 줄 너무나 감사한 시기였다.

원혜 / 명령아 / 노하은 기자 사진 / 박철호 기자

▶수련회는 신앙생활의 충전소가 아니라 정기 집회와 같습니다. 부흥의 시기에 나는 입으로 주를 구주라 시인하면서도 내 삶이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는가 점검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만이 십자가와 그 사랑을 찬양하였습니다. 회개하는 밤이었고 회복의 밤이었습니다. (지은미)

▶평생소는 알고 있었는데 기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다시 깨닫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양창미)

▶말씀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구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멀리서 엿수고를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다연)

▶프로그래밍을 주면서 얼굴조차 몰랐던 많은 사람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약진이 높아질수록 어떤 약진들은 알기가 쉽지 않았는데 같이 춤을 추면서 아픔과 얼굴을 익힌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안나)

▶군 생활 동안 무뎠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참석했던 수련회. 하지만 내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과 뜻로는 내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칠그릇 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빛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윤우)

▶사실 어떤 때 성령을 다녔었는데 여태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 때 새가족 팀끼리 다 앞으로 나아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자기 반성기도를 하던 중 머리카락 밑까지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두연)

첫 걸음

나에게 있어 이번 수련회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시작이자 첫 걸음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나는 너무 오래 전부터 교회를 다녔었다. 믿음이 깊으신 어머니를 따라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시간이 넘는 거리와 친구 없는 교회는 다들 수줍어했다. 결국 고등학교에서 되고부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를 하고 나서 약 2주전부터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사실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온전히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랬기에 교회에 나왔던 2주 동안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아 가야겠다는 마음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가게 된 2박 3일의 수련회. 그곳에서 나의 마음은 정말 긍정적으로 변했다.

우선 수련회에서 주위 사람들의 깊은 신앙심에 놀랐다. 특식을 준비하며 우리 새가족집은 많이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연습을 모두 마친 후 성경 구절과 찬송가 구절을 읽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임함에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조장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감동했다. 그리고 저녁집회에 있었던 기도시간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봐왔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둘째 날 있었던 GBS시간에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나의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는 동시에 성경을 더욱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내 마음속의 변화는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었고 변화였다.

이재훈(새가족)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

주제 :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이사야 53:12)

일시 : 2월 26일(금) 저녁 7시 장소 : 김성관 위임목사

2009년 청지기훈련 Review

제1차 청지기훈련

그리스도의 기도(사편 16:1)

- 예수님 자신의 기도
- 믿는 자들의 기도

제2차 청지기훈련

특별 기도(누가복음 6:12)

-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
- 특별 기도는 언제 할 것인가?
- 교회의 기도

제3차 청지기훈련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누가복음 23:34)

-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었다
- 무지함이 핑계와 원인이 될 수 없다
-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용서함을 받았으니 기뻐하자



저에게 청지기훈련은 '회복'입니다. 영적 침체가 있을 때마다 청지기훈련의 말씀은 저에게 회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 후 영적 침체가 있는 저는 청지기훈련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6개월 된 아람이와 남편과 함께 청지기훈련에 참석하러 합니다. 박산정(권현, 23교구)



청지기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참석했는데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 다. 고백하지 못할 것 같은 죄악된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죄악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 야구선수인지와 훈련 때문에 매번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2009년 3차 청지기훈련 말씀이었던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눅 23:34)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요즘 들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얼굴도장 찍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회복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김 결(대학부)



청지기훈련은 나의 신앙고백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지기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청지기훈련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 주제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사 53:12)이라고 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는 물론이고, 내가 그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림(대학부)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기대하며

교회력과 사순절

성탄절 등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절기는 교회력의 한 부분이다. 사순절(Lent, 四旬節)은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에는 교회의 금식 기간을 정하여 회개와 함께 깨어난 분위기 속에 부활절을 준비한다. 대림절이 성탄절의 준비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순절은 부활절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재의 수요일에서 부활 주일 전날까지 40일간의 지킨다(2010년 2월 17일~4월 3일). 사순절과 연결된 중요한 절기는 다음과 같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을 1년 주기로 기념하기 위한 교회의 달력이다.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1.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사순절의 첫 번째 날로서 고난과 부활에 대한 준비일로 이날 참회자의 머리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 유래했다. (2010년 2월 17일)

2. 고난 주간 (Passion Week)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으로 종려 주일에서 부활절까지의 기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7일 간의 발자취를 집중적으로 묵상한다. (2010년 3월 28일~4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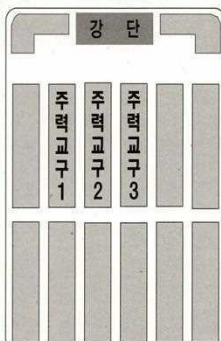
3. 성 금요일 (Good Friday)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기념하여 해마다 고난 주간 중에 이 날을 기념한다. 이 날에는 금식과 참회를 하여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2010년 4월 2일)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주력교구 (새벽 4:50 시작)

날 짜	주력교구	날 짜	주력교구	날 짜	주력교구
2월 17일(수)	1, 15, 24교구	3월 3일(수)	9, 14, 23교구	3월 17일(수)	8, 17, 21교구
2월 18일(목)	2, 7, 16교구	3월 4일(목)	1, 10, 24교구	3월 18일(목)	1, 9, 18교구
2월 19일(금)	3, 8, 17교구	3월 5일(금)	2, 11, 15교구	3월 19일(금)	2, 10, 19교구
2월 20일(토)	예배위	3월 6일(토)	예배위	3월 20일(토)	예배위
2월 21일(주)	예배위	3월 7일(주)	예배위	3월 21일(주)	예배위
2월 22일(월)	전교인	3월 8일(월)	전교인	3월 22일(월)	전교인
2월 23일(화)	4, 9, 18교구	3월 9일(화)	3, 12, 16교구	3월 23일(화)	3, 11, 20교구
2월 24일(수)	5, 10, 19교구	3월 10일(수)	4, 13, 17교구	3월 24일(수)	4, 12, 22교구
2월 25일(목)	6, 11, 20교구	3월 11일(목)	5, 14, 18교구	3월 25일(목)	5, 13, 23교구
2월 26일(금)	7, 12, 21교구	3월 12일(금)	6, 15, 19교구	3월 26일(금)	6, 14, 24교구
2월 27일(토)	예배위	3월 13일(토)	예배위	3월 27일(토)	예배위
2월 28일(주)	예배위	3월 14일(주)	예배위	3월 28일(주)	예배위
3월 1일(월)	전교인	3월 15일(월)	전교인		
3월 2일(화)	8, 13, 22교구	3월 16일(화)	7, 16, 20교구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좌석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8	김윤배	18	청년1부	박현구(22)
149	장현민	8	청년2부	윤종서(8)
150	양성미	16	청년1부	이우자(16)
151	조보희	6	초등2부	김정배(6)
152	신하미	24	청년1부	김희숙(24)
153	김하영	8	초등2부	김금숙(24)
154	박연숙	20	청년1부	이소규(9)
155	이승룡	13	청년1부	유정옥(4)
156	방현진	6	청년1부	서영남(6)
157	이승현	10	청년4부	박재순(10)
158	백순영	1	청년1부	김정민(5)
159	김군수	1	청년1부	김문경(5)
160	김지혜	13	청년2부	김미영(3)
161	황광수	9	청년1부	오은경(11)
162	김형민	7	청년1부	박현주(7)
163	이광진	23	청년2부	박정민(5)
164	조승희	8	청년2부	이정희(4)
165	김도형	8	대학부	이영규(17)
166	노진아	8	대학부	이영규(17)
167	이형진	20	대학부	이영규(17)
168	조은진	10	대학부	이영규(17)
169	이희준	3	대학부	
170	송성현	24	청년2부	정선민(24)
171	조종필	24	청년2부	김서제(14)
172	송우리	25	대학부	신승철(25)
173	홍예리	20	대학부	전승희(3)

* 순환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전도위원회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장소: 201실 1000-1200
결사: 본당 1123

발제
1. 주일예배 타교로전환자(박남주 안수업자 및 전도, 김보훈 권사의 기도, 4교구 동수영장사/4실 배제, 6회) 장제
2. 장로회 교리교도(장영순 안수업자 및 전도, 김보훈 권사의 기도, 4교구 동수영장사/4실 배제, 6회) 장제
3. 김주영 군감장사 설교-안연희 집사의 아들, 타교도 이신자(이윤걸 제-안덕자 제의 딸, 9교구/201실) 1700, 장영순 장로회 교리교도(장영순 안수업자 및 전도, 김보훈 권사의 기도, 4교구 동수영장사/4실 배제, 6회) 장제

결혼식 장소 및 시간 이용안내
결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혼식 장소 신설 및 시간 변경을 하였다. (주요 사항)
장소: 신랑의 사모(400) 또는 본의 여가(400)
시간: 연례교도(400) 또는 본의 여가(400)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주한총회 선교사업
1. 주한총회 선교사업
2. 주한총회 선교사업
3. 주한총회 선교사업

외선부 수련회 일시: 2월 13일(월)~14일(수) 장소: 충천교회(13: 제1교관, 14: 제2교관)
2009년 2월 하반기 정기회개개시
1. 장사: 2월 13일(월)~14일(수) 2. 장사: 2월 13일(월)~14일(수)
3. 장사: 2월 13일(월)~14일(수) 4. 장사: 2월 13일(월)~14일(수)
5. 장사: 2월 13일(월)~14일(수) 6. 장사: 2월 13일(월)~14일(수)

총회 교육훈련 제도
일시: 2월 13일(월)~14일(수) 장소: 충천교회(13: 제1교관, 14: 제2교관)
장사: 2월 13일(월)~14일(수) 장사: 2월 13일(월)~14일(수)

정년부 겨울수련회 일시: 2월 27일(토) 900~1700 장소: 제1교관 3층
장사: 2월 27일(토) 900~1700 장사: 제1교관 3층

청년부 겨울수련회 일시: 2월 27일(토) 1700 장소: 제1교관 4층
장사: 2월 27일(토) 1700~1800 장사: 제1교관 4층

2010년 전반기 교육훈련회 교육
일시: 3월 7일(토) 오후 3:30 장소: 제1교관 307호 대상: 수련회생 전원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010년 제1차 학업 및 재세
날짜: 3월 7일(토) 시간: 오후 3:30~5:00 장소: 제1교관 307호
장사: 3월 7일(토) 오후 3:30~5:00 장사: 제1교관 307호

2월 총회 교도의 창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오라"

1. 2010년 제1차 정기회개개시 2월 27일(토) 저녁 7시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길이 목상하는 사순절 17일~1월 3월이 되게 하라미 사순절 특별행복기도회에 주례교구 사귀들이 전원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3.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스럽게 4:13-14에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4.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14:10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5. 위임목사님을 성도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주시고, 영육의 강인함을 주소서.

6.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에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7.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회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8. 1년 1년 1월 1. 1) 전도하여 교회주인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25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9. 복음의 외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와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10. 총회의 재단(유지·통산·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총회복지관 및 현재 추진(의료원, 남남시설, 협합총회복지관)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명의 열매(로 15:2)가 되게 하소서.

11. 2010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열매의 전(전) 3:16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국악·민속·민요·민화)	본당
V	오전 3:00	본당
주일예배	오전 5:00	본당
수요예배	오전 11:00	제1교관 700호
금요일예배	오전 7:00	본당
교회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회신예배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교회예배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본당 114호에 있는 기도원 집회에는 영어, 중국, 일본어 및 수화로 오실 수 있습니다. 기도원 집회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등도 있습니다.

구분	시간	차량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7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7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7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7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7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1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7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6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5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4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300호
장년부	오전 12:30	제1교관 200호